



전북은행, 추석맞이 배식봉사·후원 물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날 30일 전주 금압노인복지관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배식 봉사 및 후원 물품 전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 2024년 하반기 전술훈련 평가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날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현장 활동의 기본이 되는 소방기술 능력과 화재·구조·구급 대원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

남원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날 29일, 남원월락초 4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자경위, 유관기관과 치안 강화 '맞손'

전북경찰청·도·도교육청·전북변호사회 등 실무협의회 개최... 실질적 협력 방안 모색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지난날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경찰청, 전북자치도, 도교육청, 전북변호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현장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날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경찰청, 전북자치도, 도교육청, 전북변호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현장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이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1학교 1 전담 변호사를 두는 제도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법률 교육과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업을 시군에 적극 홍보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되었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발견을 위해 복합인지 기술을 활용한 CCTV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예산 지원 등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농협은행 순창지부, 농어촌공과 쌀 소비 촉진 협약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권동현)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순창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 및 협약식을 가졌다.



김제 검산동 지역발전협의회, 발전 워크숍 진행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발전협의회(회장 박정은)가 검산동 회계팜(백학로 75-59)에서 검산동의 비전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21일 '치매극복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마련

9일 '워크온과 함께하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치매안심가맹점 찾아라' 이벤트 등

정읍시가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한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일석이조의 기회다. 또한, '치매안심가맹점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링크를 통해 치매안심가맹점을 방문하고, 현판과 함께 사진을 찍어 치매극복 희망 메시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regional office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삼천지사, 인후지사, 김제지사, 진안지사, 순창지사, 팔복지사, 순창지사, 장수지사, 서신지사, 군신지사, 부안지사, 무주지사, 호치지사, 익산지사, 고창지사.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 large '112' logo, and text: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